

봉헌 서약을 준비하는 기도

사랑이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보살핌에 감사하여 한해의 봉헌을 서약하고자 하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주님의 참된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봉헌 서약을 하는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어
세상과 이웃을 향한 더 큰 너그로움을 드러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더 깊은 헌신을 결단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봉헌 서약서를 작성한 뒤에 드리는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봉헌 서약에 우리가 흘리는 수고의 땀과 삶의 소망을 담아 드리오니
그 작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함과 진실함을 살피 주소서.

이 봉헌 서약으로 힘을 얻을 이웃의 환한 얼굴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우뚝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당 안에서
주님을 보고 만나게 하소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우리와 가정을 축복하시어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희생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봉헌 서약은 ...

신앙 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느님과 나누는 복된 약속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보살피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헌신입니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며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오 6:31-33)

사랑하는 교우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간절한 시
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드리운 그들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외로움이 깊었고, 때로는 사랑하
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
난을 더 깊이 되새기고, 함께하는 신앙의 친구들을 더욱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교
회를 통한 기도와 헌신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교우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큰마음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놀라운 신앙의 증언입니
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헌신입니다.

우리 영등포 성당은 새로 임명된 관할사제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
께, 우리는 신앙의 회복, 전례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을 지켜온 분들
을 더욱 깊이 보살피면서, 도시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진리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
여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회복과 선교를 위한 봉헌 서약에 모든 교우, 모든 가정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서는 많고 적음보다는 약속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약속의 실행에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
여 주십시오.

봉헌의 신앙과 선교의 뜻을 잘 읽고 헤아려 주십시오. 기도로 결단하여 연간 봉헌 서약을 해 주십시
오. 한 해 기도 제목과 함께 적어 봉헌하여 주십시오. 서약서는 사순 4주일(3월 27일, 장미주일) 성찬례
에서 약속의 예물로 드리며, 그 정성 어린 마음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교우님과 가정에 풍
성히 넘치기를 빕니다.

성공회 영등포 성당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신자회장 김종희 요셉
사제회장 차기성 안드레 드림

복되고 아름다운 봉헌과 헌금 서약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성찬례 예물기도)

성찬례의 봉헌 때 드리는 이 기원은 신앙생활의 태도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감사의 생활과 선교의 실천을 봉사와 재물의 봉헌으로 표현합니다.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만큼, 봉헌의 결단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정직한 수고와 땀의 결과를 봉헌하는 일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입니다.

헌금 봉헌이 복된 까닭은 봉헌금이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봉헌금을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회복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봉헌은 인간과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하느님의 꿈에 참여하겠다는 신앙인의 의지이며 의무입니다.

헌금 봉헌이 아름다운 까닭은 헌금에 담긴 수고의 땀방울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싸매시며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길이 되어 주님의 고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거두어 땀방울을 함께 나누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헌금 봉헌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봉헌의 약속은 삶의 제일 가치가 세상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약속하고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선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물질을 선택하면 하느님을 버리게 되지만, 하느님을 선택하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과 생활의 풍요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봉헌 서약(십일조, 월정헌금, 주정헌금, 기타서약헌금)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을 진심과 성심으로 바치기로 약속할 때, 하느님은 기뻐하시며, 이웃은 큰 혜택을 얻습니다. 모든 교우가 봉헌 서약에 참여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립니다.

봉헌 생활과 헌금 서약 - 신앙과 선교의 기초체력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자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사는 모든 활동을 <봉헌 생활>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봉사는 모두 우리 마음과 몸을 하느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봉헌입니다. 우리 삶의 처지가 어떻든 하느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봉헌생활은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다른 분과 다른 곳을 향하여 내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해 예배하고, 교회의 사목과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려고 봉사합니다. 그 축복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봉헌생활 가운데 헌금에 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와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과 부패 문제는 헌금에 대한 불신을 낳습니다. 이에 비하여, 성공회는 헌금을 무작정 강요하지 않으며, 재정이 투명한 공동체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예물과 헌금은 언제나 정직한 신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선교를 위한 헌신의 표시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헌금의 종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예배 헌금은 크게 서약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나뉘고, 목적헌금은 특별 목적, 선교 지원, 기금 헌금으로 나뉩니다.

- ☞ **서약헌금** : 십일조, 월정 또는 주정 헌금 등 1년 간 약속한 봉헌입니다. 연초에 기도로 서약하여 봉헌하며, 서약자들을 축복합니다. 봉헌생활의 기초이며, 신앙공동체의 기초 체력입니다.
- ☞ **감사헌금** : 삶의 고비마다 하느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정성입니다. 일곱가지 성사에 따라 성찬례, 세례, 견진, 혼배, 서품, 고해, 조병성사 때 드리며, 출생과 생일, 각종 기념과 입학, 졸업 등 삶의 여러 경조사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 ☞ **특별 목적 헌금** : 사목의 발전과 시급한 목적에 따라 드리는 너그러운 손길입니다. 교회 발전과 성장의 발돋움에 되는 소중한 헌금입니다.
- ☞ **선교 지원 헌금** : 헌금은 밖으로 더 많이 쓰여야 합니다. 지역 교회와 선교 기관을 도와 하느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데 너무도 소중한 헌신입니다.
- ☞ **기금 헌금** : 신앙인의 삶을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선한 유산과 영향력을 이어가도록 신앙의 유지를 받들어 마련하는 헌금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떠받치는 신앙의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 가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박고
그 더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골로 2:6-7)